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2. 3. 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
외교부로 이관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
전달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

(3.29일자 한국경제 「美 '통상조직 외교부 이관'에 사실상 반대」
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3.29일자 한국경제 <美 '통상조직 외교부 이관'에 사실상 반대>
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◇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통상 기능을
외교부로 이관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
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

1. 기사내용

-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정부·국회
대표단이 지난 14~18일(현지시간)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
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통상
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
전달한 것으로 확인됨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정부·국회

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 새정부의 통상조직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없음

※ 문의 : 한미FTA대책과 박성진 과장(044-203-5940)
미 주 통 상 과 박성준 과장(044-203-5650)